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

수해도, 북핵문제도 전화위복될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교, 그 중에서도 민간외교 문화외교의 일꾼들이 그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계에도 큰 축제가 되고 경제적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서 뭔가 하나 더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될까 싶겠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과 역량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성과로 확인한 것도 있고 성과와 상관없이도 외국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면 우리 위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역량도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비록 상대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겁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해를 입어서 유치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실험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겠지만 핵문제도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 악재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조금 전 대한체육회장이 남북 단일팀 문제도 혹시 물 건너가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정치적 문제는 정치문제로 풀어 가면 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스포츠로의 대화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남북 단일팀 만들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이기고 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박수를 덜 치시는 편입니다. 한 분 한 분 말씀 끝나고 박수를 기다리는데 안 나와 제가 유도하기도 했지만 뭔가 여러분 마음에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 보고를 받는데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에 대한 걱정이 꼭 붙어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욕심을 한 번에 부려서 체육계 내부의 지역 간 목표추구 과정에서 평창에 대한 지원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인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서로 여러 가지 노력이 아울러서 상승효과를 갖는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제몫이 아닙니다. 내년 과테말라(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IOC총회)에 가는 것은 충분히 제 몫일 수 있지만,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문제라 회피한다면 2003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또 (이전과)다른 이유로 실수할 수 있지만, 한 번 했던 실수를 또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다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서, 평창이 확실하게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는 말은 신화가 아닌 현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부 책임자도 이 문제에 있어서 혹시 입장이 곤란해서 지원, 후원만 하겠다고 한 발 뒤로 빠져 있으면, 그야말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못하는 것은 민간자율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막판까지 견해의 차이가 있어 불안과 자신감이 교착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가진 공식적 권한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어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부 영역 뿐 아니라 민간 영역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꼭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 봅시다. 이제 마지막 코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민들이 가진 신화다 그랬는데,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 진리입니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 꼭 해냅시다. 내년 여러분들 모시고 녹지원에서 감사의 잔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납시다.